



건강보험의 행동적 해이 개념과 적용

오승연 연구위원

■ 건강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과소이용하는 행태인 소위 행동적 해이(behavioral hazard) 현상이 주목 받고 있음. 행동적 해이는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과소이용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료서비스를 과다이용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와 차별되지만, 둘 다 의료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유사성이 있음. 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존 건강보험 정책은 본인부담액을 높여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데 집중해 왔음. 하지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과소이용하는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.

■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는 의료소비자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과다이용하도록 하여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낮추고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임.

● 본인부담액 제도는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비용의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임.

■ 그러나 이와는 달리 최근에는 건강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과소이용하도록 하는 소위 “행동적 해이(behavioral hazard)¹⁾” 현상이 주목받고 있음.

● 행동적 해이는 의료이용자의 잘못된 심리적 편향으로 인한 실수나 행동편향(behavioral bias)에서 비롯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들을 말함.

● 과소이용의 대표적인 경우가 의약품 복용에서 나타나는데,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약임에도 과소이용 행태가 나타나고 있음.

– 예컨대, 당(glucose) 수치를 낮추는 약은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이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지 않음.²⁾

1) Baicker et. al(2012), “Behavioral Hazard in Health Insurance”, *NBER working paper*; No. 18468.

2) Rubin(2005), “Adherence to Pharmacologic Therapy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”, *The American journal of medicine*, 118(5).

- 행동적 해이는 도덕적 해이와 마찬가지로 의료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함.

■ 행동적 해이를 일으키는 원인인 심리적 편향에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음.

- 관심(attention): 치료를 받는 것은 증상이 얼마나 두드러지냐에 달려 있는데, 보통 심각한 질병들은 두드러진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됨.
- 시점(timing): 사람들은 약을 복용하지 않아 초래될 미래의 고통보다 당장의 치료비용, 처방전을 받는 것, 또는 검진예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느끼는 성향
- 기억(memory): 약 복용이나 처방받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
- 믿음(belief): 다른 치료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를 무시하는 성향

■ 행동적 해이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의료이용자가 심리적 편향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과소이용하게 됨.

- 의료서비스 과소이용은 본인부담액이 높을 때 즉, 의료이용으로 지불해야 할 본인부담액 비용이 의료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효용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발생함.

■ 행동적 해이는 도덕적 해이와는 달리 본인부담액을 낮출 때 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옴.

-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 경우, 본인부담액을 줄이면 소비자 입장에서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져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증가할 것임.
- 행동적 해이가 존재하는 경우, 본인부담액을 줄이면 필요한 의료를 과소이용하고 있던 의료소비자가 낮아진 가격으로 인해 의료이용을 증가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후생을 높이게 됨.

■ 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존의 건강보험 정책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데만 집중해 왔으나,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과소이용하는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함.

-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과소이용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의료서비스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.
 - 각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치료효과와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고, 가치가 큰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액을 낮춰 소비자의 과소이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.
 - 반면, 가치가 낮은 의료서비스의 경우는 본인부담액을 높여 불필요한 이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임.
- 소비자의 수요가 가격에 민감한 의료서비스일수록 본인부담액을 낮추는 데에 따른 후생증진 효과가 클 것임. **kiri**